

Daniel: 30 – Sermon Notes

Title: “Daniel's vision interpreted (part 2)”

Scripture: Daniel 7:23-28

Date preached: January 12th 2025

Scripture: Daniel 7:23-28**23 “Thus he said:**

**‘The fourth beast shall be
A fourth kingdom on earth,
Which shall be different from all *other* kingdoms,
And shall devour the whole earth,
Trample it and break it in pieces.**

**24 The ten horns *are* ten kings
Who shall arise from this kingdom.
And another shall rise after them;
He shall be different from the first *ones*,
And shall subdue three kings.**

**25 He shall speak *pompous* words against the Most High,
Shall persecut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And shall intend to change times and law.
Then *the saints* shall be given into his hand
For a time and times and half a time.**

**26 ‘But the court shall be seated,
And they shall take away his dominion,
To consume and destroy *it* forever.**

**27 Then the kingdom and dominion,
And the greatness of the kingdoms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and obey Him.’**

28 “This *is* the end of the account. As for me, Daniel, my thoughts greatly troubled me, and my countenance changed; but I kept the matter in my heart.”

23 나에게 설명을 해 주는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다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명의 왕이며 그 외에 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 달라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25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켜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26 “그러나 삼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주 망해 버릴 것이며 27 천하의 모든 나라와 권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삼키며 복종할 것이다” 28 이것으로 그 꿈의 해석은 끝났다 나 다니엘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몹시 심란하였으나 그 일을 감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Review

Before we bring our study of Daniel's first vision to an end let's take a few moments to review where we are.

As I have spoken about at some length chapter 7 of Daniel marks a change in both style and content. We go from narrative stories about Daniel and his friends in Babylon to a highly symbolic form of literature known as apocalyptic. Although there is considerable diversity among the apocalyptic writings they all share a number of things in common. The encyclopedia of the bible

describes their common shared features as follows,

Apocalyptic writing contains the presence of a cosmic dualism (good versus evil), visions and revelations; a contrast between the present evil age and the coming eschatological age; pessimism concerning the present age and optimism concerning the age to come; references and allusions to mythology, numerology, and animal symbolism; the idea of the unity of history and a goal toward which history is moving; the development of belief in life after death, and especially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and the judgment of the wicked, and the appearance of a transcendent figure identified as "the Son of Man." (Encyclopedia of The Bible – Apocalyptic Literature)

This is what we encounter as we move from chapter 6 into chapter 7. It is also what makes this section of the book a challenging and puzzling read at times. Chapter seven opens with Daniel telling us of a dream/vision he received from God in the first year of King Belshazzar of Babylon. This would have been in the year of either 553 or 554 BC.

As Daniel was sleeping he dreamed of four weird beasts emerging from a stirred up ocean. The four beasts as we have seen neatly align with the statue image that King Nebuchadnezzar dreamed of back in chapter 2. The statue as I'm sure you recall represented four succeeding Gentile empires (Babylonian, Medo-Persian, Greek and Roman). The beasts that Daniel sees here in chapter 7 mirror this same sequence of succeeding empires. The big difference lies in how they are perceived. In chapter 2 they were presented as a glorious statue made of precious metals. Here in chapter 7 we witness a series of horrifying beasts emerging from the sea. This difference derives from whose perspective we are witnessing. In chapter 2 we are getting King Nebuchadnezzar's perspective. We are receiving a human opinion of the empires of men. Nebuchadnezzar was impressed with what he saw. We are no different today. We look back into antiquity and marvel at the glorious empires of Babylon, Persia, Greece and Rome. We look at their artistic and cultural achievements and are awed.

God's perspective however is very different. He is not impressed by the efforts of men. He sees things for how they truly are. He is horrified by the cruelty and barbarism that lies behind the rise of human empires. He sees that they are built upon blood, sweat and tears.

Therefore what Daniel sees is suitably shocking. Four beasts each one more hideous than the previous. A winged lion, followed by a bear like creature. This in turn is replaced by a four-headed leopard with wings on its back. This third creature is followed by the most monstrous of them all. A beast so horrific it defies comparison with any natural animal. A creature that goes around chewing, chomping and trampling everything in its way.

As he watches Daniel's glance is drawn towards the horns that this beast supports. It begins with 10 but as he watches an eleventh smaller horn emerges. This new horn has eyes and a mouth with which he speaks pompous words. We know this small horn to represent the Antichrist. The small horn watches as three of the existing horns are plucked up.

From here the vision takes Daniel into the heavenly court. He is to witness The Ancient of Days (God the Father) calling together His divine council to judge the Antichrist. The Antichrist is found guilty and sentenced to death. From here Daniel gets to see the Son of Man (The Lord Jesus Christ) arriving before God the Father. He is to be given power and dominion over the whole Earth. Daniel is understandably disturbed by what he has seen. He is confused and unclear about what all of what he has seen means. Therefore he approaches one of those standing nearby. This individual's identity is not given to us but given that we are still in the heavenly court we might assume it to be a spiritual being (an angel). Last time we looked at the interpretation that this individual gave to Daniel. He affirmed that the four beasts represented four kings (empires) that would arise on earth. These Gentile empires would persist until the time God steps in and bring their time to an end. They will be replaced by a Divine Kingdom that will last forever. This is a reference to the Millennial

Kingdom of Christ which will be followed by the New Heavens and the Earth to follow.

Daniel's attention is then drawn back to the fourth kingdom and in particular the "little horn." That will be the subject of our sermon today.

오늘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에 대한 공부를 마치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 7 장은 스타일과 내용 모두에서 변화를 보여줍니다. 바빌론에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서사적 이야기에서 묵시록이라고 알려진 매우 상징적인 문학 형태로 넘어갑니다. 묵시록적인 글들은 다양하지만 모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 백과사전은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묵시록적 글에는 우주적 이원론 선과 악, 환상과 계시 현재의 악한 시대와 다가올 종말론적 시대의 대조, 현재 시대에 대한 비판주의와 다가올 시대에 대한 □□□□, 신화 수비학 동물 □□□□ 대한 언급과 암시 역사의 통일성과 역사가 나아가는 목표에 대한 아이디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의 전개 특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심판 그리고 "인자 the Son of Man" 로 식별된 초월적 인물의 출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성경 백과사전- 묵시문학

이것은 우리가 6 장에서 7 장으로 넘어가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부분을 읽을 때 종종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7 장은 바빌론의 벨사살 왕의 첫해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553 년 또는 554 년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격동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기괴한 짐승들을 보았습니다.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 2 장에서 꿈꿨던 신상이 의미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그 신상은 네 이방 제국(바빌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7 장에서 본 짐승들 또한 이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그 두 환상의 큰 차이점은 그들이 어떻게 인식되었는가입니다. 2 장에서 그들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신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7 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무서운 짐승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누구의 관점이 반영되었는가입니다. 2 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관점에서 봅니다. 인간의 제국에 대한 인간의 의견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본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대를 돌아보며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영광스러운 제국에 경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예술적, 문화적 업적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의 성취에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참모습을 봅니다. 인간 제국의 성공 뒤에 존재하는 잔인함과 아만성이 그분을 진저리치게 합니다. 그분은 그것들이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건설되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보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진행할수록 더 흥취해지는 네 마리의 짐승 □□□□□□, 그 이후에 나오는 꿈과 같은 짐승. 등에 날개가 달린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그 뒤로 가장 흥취한 짐승이 뒤따릅니다. 세상의 어떤 동물에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짐승입니다. 그 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물어뜯고, 부숴뜨리고, 짓밟아 버리는 짐승.

그가 지켜보는 동안 다니엘의 시선은 이 짐승의 머리에 난 뿔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10 개였다가 그가 지켜보는 동안 열한 번째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뿔에는 눈과 입이 있어서 거만한 말을 합니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작은 뿔은 기존 뿔 중 세 개가 뽑히는 것을 지켜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환상은 천상의 법정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하나님 아버지)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법정을 소집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인자(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대한 권세와 왕권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것으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누군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존재의 정체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하늘의 법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적인 존재(천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해석을 □□□□□□ 그는 네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제국)을 나타낸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이방 제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그들의 시간을 끝낼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신성한 왕국이 그 제국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왕국, 특히 "작은 뿔"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23 “Thus he said: ‘The fourth beast shall be A fourth kingdom on earth, Which shall be different from all *other* kingdoms, And shall devour the whole earth, Trample it and break it in pieces.

Daniel, not surprisingly is most interested in the fourth beast that emerges. All of the beasts are grotesque and fear-inducing, but this final creature is the most terrifying of all. It is the one that captures his attention. I suppose it would be the same if you asked a child who loved dinosaurs which was his favourite. Which do you suppose would capture their interest? Surely pick one of the big scary ones with razor like claws and a mouth full of sharp teeth!

So upon being prompted the individual to whom Daniel turned for insight tells him more about the fourth beast. The first thing he is told is that this beast differs from **all** other kingdoms. Before looking at this in more detail I have to clarify one point. The mention here of “kingdom” refers not only to a realm or empire, but also to its ruler or king. In what way will this realm and ruler be different?

The first way it will differ lies in the scope and scale of this empire or kingdom. We are told that it shall **devour the whole earth.**

Pictured on the screen you can see depicted the two biggest empires the world has witnessed. There are various ways we could measure the size of an empire. We might consider population size, economic power or military might. However the most common way to measure relates to geographic size, the area that an empire controlled. The British Empire, at its height controlled approximately 26% of the earth's land area. The Mongol Empire ruled over close to 18%.

So these were indeed massive empires. But even the British Empire, the largest empire yet created only controlled one fourth of the earth.

23 나에게 설명을 해 주는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리아다 이것은 다른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 뿔아 부수뜨릴 것이다

다니엘이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세 짐승들도 기괴하고 두렵지만, 이 마지막 짐승이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가장 좋아하는 공룡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어떤 공룡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을까요? 면도날 같은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입이 있는 크고 무섭게 생긴 공룡을 고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질문을 했던 그 천사가 네 번째 짐승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줍니다. 첫째,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왕국들과 다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왕국kingdom"은 영토 realm 뿐만 아니라 통치자ruler 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짐승은 영토와 통치자와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첫 번째 차이점은 이 왕국의 범위와 규모에 있습니다. 그는 이 짐승이 온 세상을 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두 제국을 보여줍니다. 제국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규모, 경제력 또는 군사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제국이 지배한 영토의 □□□□□. 영국 제국은 전성기에 지구 육지 면적의 약 26%를 지배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약 18%를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영국 제국조차도 지구의 4분의 1만을 지배했습니다.

So the first way in which the Antichrist's Kingdom will differ will be in its size.

There is some debate about whether the “whole earth” really does mean the whole earth. At times the bible does use figures of speech in much the way we do. In Luke 2:1 we read for example.

And it came to pass in those days *that* a decree went out from Caesar Augustus that all the world should be registered.

Common sense should tell us that this does not mean that the decree of the Roman Caesar went to every corner of the globe. Obviously the decree was not sent to Tasmania and Peru!

In this case I do believe the whole world is in view. There may well be some dissenting nations as the end times scenarios unfold. There may be some who refuse to participate. However the plan is for a global system in which the planet is divided into ten regions each of which will be governed by a king. As this system takes shape and gains power it will be much harder for nations to resist.

It's rather like what happened with Europe. When the push came to introduce a region wide European currency many nations initially objected. They wanted to maintain their own individual currencies. However as more and more countries were persuaded to join those resisting became fearful. How would opting out affect them? Would they be left out and find themselves unable to compete and trade? Therefore they agreed to join the Euro zone and adopt a shared currency. I imagine things will be the same as the global world system takes shape. Those that initially object will soon be “persuaded” to join.

This final world kingdom will also differ in the way it is run and managed. Much of the world does not enjoy free and fair elections. Many people cannot vote for the people they want as the governors. Even when the facade of democracy is in place the system is often corrupt or rigged. Simply put much of the world today exist under a tyranny. In the final world system there will be no democracy for anyone. Those living at this time will live under the worst tyranny imaginable.

The next thing we read is that the fourth beast will **trample and break it (the earth) into pieces**. This speaks to the destructive ambitions of this final world system. There will be no pretence of trying to gently impose order and control. Those that lead it are not interested in building up and developing things. Instead, they will seek to seize and maintain power through violent and aggressive means. they will most likely do this through their overwhelming military might. We have seen an exponential rise in the destructive capabilities of weapons over the 20th century. In the first world war the British army were still using horses! Now we can obliterate entire cities in seconds. We can wreak mass destruction as and when we wish. The final global system will have all these weapons at its disposal.

So picture in your minds the idea of massively powerful global empire that is ready and willing to crush any dissenters. Let us continue.

따라서 적그리스도 왕국의 첫 번째로 다른 특징은 그 크기입니다.

"온 세상"이 실제로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때때로 성경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 에서 보면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세상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 □□□ □□□ □□ □□□□ □□□ □□□□ . 분명히 그 칙령은 타스마니아와 페루까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그리스도 왕국의 경우에 실제로 온 세상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종말 시나리오가 전개됨에 따라 일부 반대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국은 지구를 10 개 지역

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왕이 통치하는 글로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형성되고 권력을 얻으면 국가들이 저항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유럽 전체에서 통용될 유로화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통화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자 반대하던 나라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경쟁과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유로존에 가입하고 공동 유로화를 채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전지구적인 체계가 형성되면서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나라들도 가입하도록 설득 당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계 왕국은 운영 및 관리 방식에서도 다를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서도 선거 시스템은 종종 부패하거나 조작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세계의 많은 지역은 독재자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체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사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폭정 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짐승이 **온 세상을 뚫고 뺏아 부수뜨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 마지막 세상 체제의 파괴적인 야망을 말해줍니다. 질서와 통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려는 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체계의 지도자들은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공격적인 수단을 통해 권력을 탈취하고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는 20 세기에 무기의 파괴력이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 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군은 여전히 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몇 초 만에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대량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 체제는 이 모든 무기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항하는 자들을 무너뜨릴 위력이 있고 가까이 그렇게 할 엄청난 강력한 세계 제국을 상상해 보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 The ten horns are ten kings

Who shall arise from this kingdom.

And another shall rise after them;

He shall be different from the first ones,

And shall subdue three kings.

Daniel's interpreter now switches his attention to the horns on this fourth beast's head. Before I give you my understanding of what is in view here let me first say that over the centuries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Many great bible scholars and teachers have differed in their opinions. So I suppose we should be wary about being too dogmatic, or saying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it means this or that.

By way of an example let me tell you the great reformer John Calvin's interpretation. Before I do I want to say that I greatly admire John Calvin. I believe him to be a mighty man of faith who God used in amazing ways. His bible commentaries are often very helpful. Here however I disagree with his view.

John Calvin spiritualized what we are reading here in chapter seven. He insisted that what Daniel witnessed was fulfilled in history up unto the time of Christ's first advent. He understood the ten horns to represent a multiplicity of kings or emerged under the Roman emperor. The "little horn" he believed was Julius Caesar and the other Caesars who succeeded him.

Or what about this view. I read this in an online commentary. The 10 horns represent 10 Jewish generals. They were promoted to lead Israel after the Jews defeated Cestius Gallus in November of 66 AD.

Both of these views are interesting, but I believe wrong.

As we noted a moment ago the fourth beast represents a unique global kingdom that emerges in the

end time. The interpreter affirms for us that the 10 horns represent 10 rulers or kings who arise from this kingdom. I maintain that what we are looking at is an end time scenario in which the planet is divided into ten regions. Each of these regions will be controlled by a king (a horn). They will happily be ruling and reigning until a new king emerges (the little horn). This is the figure of the Antichrist. Again we read the significant detail that he will b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ten.

Once again we should be drawn to ask the question. In what way will he be different?

Well, firstly we might look to the source of his power and authority. The Apostle John tells us that this derives from Satan.

Now the beast which I saw was like a leopard, his feet were like *the feet of a bear*, and his mouth like the mouth of a lion. The dragon gave him his power,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Rev 13:2)

Knowing this also tells us something very significant about the Antichrist's alignment. He is wholly opposed to and against God and God's people (given his title this should probably not surprise us). He will be Satan's man through and through.

Secondly this figure will receive worship from “all the world.”

3 And I saw one of his heads as if it had been mortally wounded, and his deadly wound was healed. And all the world marveled and followed the beast. 4 So they worshiped the dragon who gave authority to the beast; and they worshiped the beast, saying, “Who is like the beast? Who is able to make war with him?” (Revelation 13:3–4)

The Beast (Antichrist) will gladly accept this worship because he sees himself as being a legitimate replacement for God.

Thirdly he will have authority over “every tribe, people, language and nation”

7 It was granted to him to make war with the saints and to overcome them. And authority was given him over every tribe, tongue, and nation. (Revelation 13:7).

No other ruler in history could make such a claim.

So it is these things that makes this king different to all the others. We also read here the detail that he will subdue three of the existing ten kings. This as I have mentioned before speaks to how the Antichrist will usurp the power of three of the kings and take this power for himself. We can only speculate as to why this move was necessary. Do these kings try to stand against, or resist the Antichrist in some way? Or is it simply a strategic move made by the Antichrist in order to demonstrate his power? Whatever his motive it is highly effective. The remaining kings bow to his authority and fall in line.

24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명의 왕이며 그 외에 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 달라서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다니엘의 해석자는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뿔로 관심을 돌립니다. 제 견해를 알려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수세기 동안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성경 학자와 선생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독단적이거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종교 개혁기였던 존 칼빈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존 칼빈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하셨던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경 주석은 종종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존 칼빈은 다니엘서 7 장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목격한 환상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때까지

지 역사 속에서 이미 상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열 별이 여러 왕을 나타내거나 로마 황제 아래에서 나타났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작은 별"이 율리우스 시저와 그를 계승한 다른 황제들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해설에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10 개의 별은 10 명의 유대인 장군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이 기원후 66 년 11 월에 케스티우스 갈루스를 물리친 후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그들을 추대했습니다.

이 두 견해 모두 흥미롭지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네 번째 짐승은 마지막 때에 출현할 독특한 세계 왕국을 나타냅니다. 해석자는 10 개의 별이 이 왕국에서 출현하는 10 명의 통치자 또는 왕이라고 확인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구가 10 개의 지역으로 나뉜 종말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각의 지역은 왕 별에 의해 통치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 작은 별이 출현할 때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이 작은 별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가 이전 10 명의 왕과 다를 것이라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 번 묻자면 그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첫째로 그의 능력과 권위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이것을 사탄에게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계 13:2)

이를 통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잔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합니다(그의 칭호를 보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사탄의 추종자일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인물은 "온 땅 all the world" 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3. 그의 머리 하나가 꺾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꺾이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요한계시록 13:3-4)

짐승(적그리스도)은 자신을 하나님의 합법적 대체자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이 경배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셋째, 그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가질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요한계시록 13:7)

역사상 어떤 통치자도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인해 이 왕은 다른 모든 왕과 다를 것입니다. 또한 그는 현존하는 열 왕 중 세 왕을 정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 왕의 권세를 찬탈하여 자기가 취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이 왕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식으로든 저항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까요? 동기가 무엇이든 매우 효과적입니다. 권위에 무릎 꿇고 그를 지지할테니까요.

**25 He shall speak pompous words against the Most High,
Shall persecut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And shall intend to change times and law.
Then the saints shall be given into his hand
For a time and times and half a time.**

We learn here from Daniel's interpreter something about the attitude of the Antichrist. As I just mentioned he is against God and all those who love Him. He will use his platform and office to speak forcefully against God. Throughout history, we have seen powerful men stand up and boast about how great and mighty they are. We saw it in Daniel with King Nebuchadnezzar for example (Dan 4:30). History is full of men boasting about how with their power, influence or military might they can dominate, control or subdue. But the Antichrist's words are aimed directly against God. He wants, if such a thing were possible to knock God down. He seeks to rubbish God so that people will turn from the Almighty and follow him. As we read in the 2nd letter to the Thessalonians,

3 Let no one deceive you by any means; for *that Day will not come unless the falling away comes first, and the man of sin is revealed, the son of perdition, 4 who opposes and exalts himself above all that is called God or that is worshiped, so that he sits as God in the temple of God, showing himself that he is God.* (2 Thes 2:3-4)

What exactly does the Antichrist have to say? In Revelation 13:6 we read the following,

6 Then he opened his mouth in blasphemy against God, to blaspheme His name, His tabernacle, and those who dwell in heaven.

So the Antichrist speaks against God Himself, he maligns his character and nature, His tabernacle the place in which He dwells, and those believers who are in heaven.

We then read that he will persecute God's saints. In a previous sermon I spoke about how the rapture will have already taken place by this point in history. The church will be in heaven. So the "saints" here refers to those believers who come to faith during the tribulation period. The Antichrist will seek to "wear down" or "wear away" the saints through sustained persecution. Short and sharp bout of persecution can be endured. But it is very hard to stay committed when sustained attacks come over a long period of time. God, it seems will allow this persecution against His people to take place for a period of time as we shall shortly see.

We also get the interesting detail that the Antichrist will **intend to change times and law**. It is not exactly clear what it meant here. Will he try to change the calendar in some way? This was attempted unsuccessfully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They tried to replace the Christian (Gregorian) calendar with a Revolutionary calendar. Others believe that this is a deliberate attack against the Jewish feasts and festivals. The Antichrist will seek to cancel or change these special days. Perhaps erasing them completely from the calendar.

As I write this I think of the attempts in many Western countries to erase or replace the word "Christmas." Apparently this might cause offence to some. Now we are encouraged to say things like, "Happy holidays" or "Winter greetings." Resist such pressure. In fact insist on saying "Christmas" as often as possible. It's the time of year that we choose to celebrate Christ's first advent. It's impossible therefore to remove HIM from the event.

When it comes to the "laws" the Antichrist will obviously want to minimise, or ideally do away with God's laws and replace them with his own. Clearly he will not want human beings to seek to please and honour God. We have seen men chipping away at God's laws in our own lifetimes. As a good example let us consider the issue of marriage. Marriage always stood, until very recently as being the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This is what God designed and intended. Since He designed it He gets to define it. Now, in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two people of the same sex can "legally" marry. I hope that you are aware that two people of the same sex cannot be married. It's like saying look at this three sided square. It doesn't exist.

Or how about this. Every country sets aside days of the years to note or remember particular things. These are not official holidays but are usually just noted as "awareness days." In the UK have a

guess at how many days per year are assigned to LGBTQ issues. Prepare to be shocked. 201 days over the year in 43 separate events. I should note that we set aside just one day to remember the heroes who fought for our freedom in two world wars.

Here's just a taster of what's going on; the whole of March apparently is “Bisexual health awareness month,” April 6th is “Asexuality day,” May 22nd is “Harvey Milk day,” the whole of June is “Pride month,” and one of my favourites (not really) is on August 14th which is “Gay Uncle Day.” Its shocking and disgraceful that a country built and shaped by Christian values should have fallen so far.

So the Antichrist will persecute the saints and revel in his reign of terror “for a time.” Thankfully God will restrict this time to,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How long you might ask is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This expression appears seven times in the books of Daniel and Revelation (Daniel 7:25; 12:7; Revelation 11:2, 3; 12:6, 14; 13:5). In Daniel 12:7 we read,

Then I heard the man clothed in linen, who was above the waters of the river, when he held up his right hand and his left hand to heaven, and swore by Him who lives forever, 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and when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has been completely shattered, 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In Revelation, we read about the period of time during which God safeguards His tribulation saints.

Then the woman fled into the wilderness, where she has a place prepared by God, that they should feed her there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sixty days. (Rev 12:6)

In prophetic timing, a time is a year, times is two years, and half a time is naturally half of a year. So let's break it down, 1,260 days equals 42 months, or three and a half years. This means that God will allow His people to suffer hardship and persecution for three and a half years, or half of the seven-year tribulation period. Again let me reiterate that this does not mean the church. They have left the earth prior to the beginning of the tribulation.

Let us read on and see how the Antichrist's kingdom comes crashing down.

25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 년 반 동안 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다니엘의 해석자는 적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위력자들이 등장하여 자신이 얼마나 우대하고 강력한지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보았습니다(단 4:30). 인간 역사는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복종시키는 거만한 자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여 말을 할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쓰러뜨리고 싶어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돌아서서 그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폄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 장에서 기록하길

3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때 먼저 배도가 일어나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지 아니하리니 4 그는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것과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으로 앉아 자기 하나님인 것을 보이느니라(□ □ 2:3-4)

적그리스도는 정확히 무슨 말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13:6 에서 기록하길

6 그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리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그분이 거하시는 장막, 그리고 하늘에 있는 신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 설교에서 역사상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미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은 환난 기간 동안 믿음에 이르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속적인 박해를 통해 성도들을 "자치게" 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짧은 동안의 박해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핍박이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이 박해의 기간을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말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달력을 바꾸려고 할까요? 프랑스 혁명 때 이런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그레고리력 Gregorian calendar) 달력을 혁명 달력 Revolutionary calendar 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과 축제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특별한 날들을 없애거나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달력에서 완전히 자유버릴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많은 서방 국가에서 "□□□□ Christmas"라는 단어를 지우거나 대체하려는 시도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자들은 이 단어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지금은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Happy holidays"나 "겨울 인사 Winter greetings"와 같이 말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런 입력에 저항하세요. 가능한 한 자주 "□□□□"라고 의도적으로 말하세요. 그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을 축하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에서 그분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관련해서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약화 또는 없애버리고 자신의 법으로 대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공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조금씩 없애는 것을 봅니다. 좋은 예로 결혼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은 아주 최근까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믿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으므로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동성인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동성의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마치 세 면을 가진 정사각형을 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은 어떨까요? 모든 국가는 특정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 일년 중 날짜를 따로 정합니다. 이것들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식의 날 awareness days"로 기록됩니다. 영국에서 LGBTQ 에 할당된 날이 일년 중 몇 일인지 추측해 보세요. 놀랄 준비를 하세요. 43 개의 서로 다른 행사들이 있고 일년 중 201 일이나 차지합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들을 기념하는 날은 단 하루 뿐인데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3 월 전체가 "양성애자 건강 인식의 달 Bisexual health awareness month"이고, 4 월 6 일은 "무성애자의 날 Asexuality day"이고, 5 월 22 일은 "해비 밀크의 날 Harvey Milk day"이고, 6 월 전체가 "프라이드 달 Pride month"이고, 제가 좋아하는 날 중 하나는(사실은 아니지만) 8 월 14 일 "게이 삼촌의 날 Gay Uncle Day"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 건설되고 형성된 나라 영국이 그토록 타락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부끄럽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잠시" 공포의 통치를 즐길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a time, times, and half a time"**로 제한하실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이 표현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일곱 번 나옵니다(다니엘 7:25; 12:7; 요한계시록 11:2, 3; 12:6, 14; 13:5). 다니엘 12:7 에서 기록하길

내가 들은즉 그 세미포 옷을 입고 강물 우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궤계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다 궤계 하라

요한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환난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기간에 대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요한 계시록 12:6)

예언적 시계에서 한 때는 1 년이고, 두 때는 2 년이고, 반 때는 반년입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260 일은 42 개월 즉 3 년 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3 년 반 동안 즉 7 년 환난 기간의 절반 동안 고난과 박해를 겪도록 허락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6 ‘But the court shall be seated,
And they shall take away his dominion,
To consume and destroy it forever.**

God will call time on the Antichrist's kingdom after three and a half years. God will assemble His divine court (council) and they will sit in judgement of the Antichrist. Not surprisingly they will find him guilty. Let us briefly list his crimes. He had used his power to make war against God's people (19-22). He had blasphemously challenged the Almighty. And he had cruelly persecuted God's people. This even extended to altering the calendar and rewriting laws in order to turn people from God.

The Antichrist's punishment is twofold. Firstly his dominion is taken away. The word dominion here is interesting. In the Aramaic original it is the word *sholtan* or *sultan*. Today the word “sultan” is still used in Muslim countries to refer to a sovereign leader or ruler.

Note also the wording used here. God will simply “take away” the Antichrist's power. There won't be a struggle, fight or battle. God is The almighty, and He will easily accomplish His divine will. All that the Antichrist had built and assembled will be destroyed. This will bring to an end the rule of gentile kingdoms on the earth. The Antichrist's kingdom will be the last. What replaces it is the subject of the next verse.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주 망해 버릴 것이며

하나님은 3 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법정(의회)을 소집하시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의 범죄를 간략히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19-22 절).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독적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기 위해 때와 법까지 바꾸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형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의 통치권 dominion 이 박탈됩니다. 여기서의 통치권 dominion 이라는 단어는 흥미롭습니다. 아람어 원문에서는 *sholtan* 또는 *sultan* 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sultan”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슬림 국가에서 주권적 통치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박탈 take away ”하실 것입니다. 투쟁이나 싸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뜻을 쉽게 이루실 것입니다. 결

국적그리스도가 이루고 성취한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로서 지상의 이방 왕국들의 통치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다음 구절의 주제입니다.

**27 Then the kingdom and dominion,
And the greatness of the kingdoms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and obey Him.'**

Here is verse 27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Millennial reign of Christ on the earth. This is the fifth kingdom. This occurs remember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The Lord Jesus Christ returns to earth in glory accompanied by all the saints. He will then reign as king over Israel and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for a literal 1000 year period. Some may ask how Daniel can say then that His (Christ's) Kingdom is everlasting. We know after all that the Millennial period ends in Satan being unbound and the last judgement.

This I think can be explained if we understand what Daniel saw here as being a single picture of the future. God never relinquished power or control so in that sense Christ, upon His return initiates an eternal Kingdom.

This will be King Jesus' Kingdom. It will be a kingdom in which all dominions and realms bow in submission and obedience to him. It will be a glorious time in which we as His people will thrive.

Let us conclude our study today with verse 28.

27 천하의 모든 나라와 권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여기 27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환난의 끝에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지상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문자 그대로 1000 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시기 1000 사탄이 잠시 풀려난 후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여기서 본 것을 미래에 대한 단일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권세 또는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영원한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왕 예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주권과 영역이 그분에게 속하고 순종하는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왕국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번성할 영광스러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28 절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8 “This is the end of the account. As for me, Daniel, my thoughts greatly troubled me, and my countenance changed; but I kept the matter in my heart.”

This is how Daniel concludes the account of the his first vision.

He was, quite understandably deeply troubled. God had allowed him to experience an intense and disturbing dream. The images themselves along with the angelic beings interpretation left Daniel stunned.

We must acknowledge that although Daniel was deeply faithful and committed to God, he was also human. As I have pointed out on several occasions he was not "superhuman." He felt fear, fatigue and emotional distress as we all do.

We are told that his **countenance changed**. His face became pale as he considered the gravity of

I grew up in the church. I went with my family every Sunday, attended Sunday school, the church youth group every Wednesday and went on numerous church camps. I would say then that I had a good grounding in the bible and in Christian living. But here's an interesting fact. In all that time I don't ever remember hearing a sermon, or being taught about the subject of the end times and biblical prophecy.

Now perhaps my upbringing was highly unusual. Possibly my church was unusually remiss in this area. Maybe you have often heard pastors preach on the end times, and biblical prophecy. It may have been a common subject at your church. Or maybe, just like me this has been a much neglected area in your Christian life.

According to the professor and theologian J. Barton Payne approximately 27%, a little over one fourth of the bible is predictive. He goes on to note that he has personally counted 1,817 prophecies in the bible. Of these prophecies he estimates that at least 50% have been fulfilled. (Payne, J. B., *The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 Baker Pub. Group, 1980, p.674- 675). That still leaves a staggering 908 still to be fulfilled. Even if Professor Payne's figures are a little off it still means there are a great many future events prophesied in the bible that are yet to happen. Given this reality isn't it amazing that we are not studying this subject with more vigour.

Why then is this such a neglected subject in so many churches? There mayb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Let us be honest, some churches don't take the Bible literally,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topics like prophecies and the end-times. Some feel the book of Revelation is just an allegory and therefore not a subject of belief. It is a book they ignore or treat simply as an allegory.

In some churches it may be the case that their pastors or leaders lack the training, education or experience in this area. It is certainly true that over the past few decades many seminaries and bible training facilities have neglected this area.

Many churches I suspect have been put off the subject by the “loons and fruitcakes” who often delight in speculating about the end times. We all know about those who insist upon setting dates, or trying to connect world events to things in the bible. Such guess-work can at times lead to silly ideas and wild speculation. I think this was probably the case for the church in which I grew up.

Perhaps some simply fear offending people. This may be particularly prevalent in today's “cancel culture” world. They suspect that divisions or rifts may occur because so many different views are held. So for a whole variety of reasons the subject of the end times and prophecy is overlooked or ignored.

This I believe is a grave mistake. Both Thessalonian epistles show us that the early church was interested in prophecy, and so of course was the Apostle Paul. Given the vast quantity of prophecy in the bible it ought to interest us too. God wouldn't have revealed so much of it in His Word if it were not worthy of our attention. It may at times be a challenging and difficult subject. We may encounter differing views and opinions. Passions and emotions may run high. But let us never forget that prophecy is important. It reveals to us God's control over history. It shows us that what He predicts does come to pass. Let us then all be willing to devote ourselves to grappling with prophecy.

예언의 씨름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렸고, 주일 학교에 참석했고, 매주 수요일에는 교회 청소년 모임에 다녔고, 수많은 교회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과 크리스찬 삶에 대한 단단한 기초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저는 종말과 성경 예언에 대한 주제에 대해 설교를 듣

거나 기름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란 방식이 특이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 분야에 많이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목사들이 종말과 성경 예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자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교회에서 흔한 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당신의 크리스찬 삶에서 이 부분이 많이 소홀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이자 신학자인 J. Barton Payne 에 따르면 성경의 약 27%, 즉 성경의 ¼ 이상이 예언에 대해 다룹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예언을 세어 보니 1,817 개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예언들 중 적어도 50%가 성취되었다고 추정합니다. (Payne, J. B., *The Encyclopedia of Biblical Prophecy*, Baker Pub. Group, 1980, p.674-675). 그리고 여전히 성취되어야 할 예언이 908 개 남아 있습니다. Payne 교수가 쓴 예언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더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주제가 많은 교회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예언과 종말과 같은 주제와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단지 비유일 뿐이므로 믿음의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책을 무시하거나 단순한 비유로 취급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나 지도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훈련, 교육 또는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신학교와 성경 교육 기관이 이 분야에 소홀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종말에 대해 추측하는 것을 즐기는 "마치깡이들 loons and fruitcakes" 때문에 이 주제를 꺼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의 예언과 연결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측은 종종 어리석은 생각과 지나친 억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란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취소 문화 cancel culture" 세상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대해 너무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종말과 예언에 대한 주제가 간과되거나 무시됩니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실수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두 서신은 초기 교회가 예언에 관심이 많았고, 사도 바울도 그렸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으니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언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예언을 계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도전적이고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견해와 의견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감정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예언은 우리에게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를 보여줍니다. 그분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언과 씨름하는 데 가까이 헌신합니다.

